

# 파니움 - 제이십이번

2023년 12월 31일

Jeff Pippenger

2026-03-12

2023년 12월 31일부터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특정한 순서에 따라 예언적 진리들의 봉인을 풀어 오셨다. 그 순서는 Future for America 웹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들을 검토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봉인이 풀린 진리들은 많고도 심오하다! 그 순서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다. 그 순차적 배열은,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교회에, 이어서 세상에 주실 마지막 시험의 기별들의 봉인을 풀어 가실 때 이루시는 의도된 연속적 과정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요한계시록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는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을 취하시고, 그 인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떼신다.

## 각기 그 질서에 따라 드러날 것이다

이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낸 뒤에, 작은 책과 관련하여 다니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요한에게도 다음과 같은 명령이 주어진다: '그 일곱 우레가 말한 것들은 봉하여 두라.' 이것들은 장차 그 순서대로 드러나게 될 미래의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자기 분깃에 설 것이다. 요한은 작은 책의 봉인이 풀리는 것을 본다. 그러면 다니엘의 예언들은 세상에 전해질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메시지들 안에서 제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작은 책의 봉인 해제는 때와 관련된 메시지였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하나다. 하나는 예언이요 다른 하나는 계시며, 하나는 봉함된 책이요 다른 하나는 열린 책이다. 요한은 우리가 말한 비밀들을 들었으나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요한에게 주어진 특별한 빛은 일곱 우레에 표현되었는데, 그것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아래에서 전개될 사건들의 개요였다.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알게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었으니, 그들의 믿음이 반드시 시험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가장 놀랍고 진보된 진리들이 선포될 것이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되어야 했으나, 이 기별들이 그들의 특정한 일을 마치기 전에는 그 이상의 빛이 계시되어서는 안 되었다. 이는 한 발을 바다에 두고 서서 더 이상 때가 없을 것이라고 가장 엄숙한 맹세로 선포하는 천사로 상징된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주석, 제7권, 971쪽.

'일곱 우레'의 최종 계시가 2023년 이후에 열려 드러났고, 그것은 '일곱 우레'가 최초의 알파 실망에서 마지막 오메가 실망에 이르기까지를 표상한다는 것을 드러냈다. 요한은 '일곱 우레'를 규정하도록 허락되지 않았으니, 이는 '일곱 우레'의 계시가 역사의 단일한 성취가 아니라, 밀러주의 운동의 역사에서 일어났고 말세에 다시 일어나게 될 '사건들의 윤곽'을 제시하는 하나의 예증이었기 때문이다. 완전한 성취는 2020년 7월 18일부터 임박한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예증하기 위하여 보여 주어졌다. 그 사자는 그 빛을 열어 십사만 사천의 성전 건립의 역사 위에 비추게 하였다.

밀러파의 역사에서 "일곱 우레"는 밀러파가 "가장 놀랍고 진보된 진리들"을 제시하던 1798년부터 1844년에 이르는 기간을 상징하였다. 그들에게 맡겨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밀러파는 시험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포하고 있던 기별이나 자신들이 성취하고 있던 역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선포한 진리들은 엘렌 G. 화잇이 "진보된 진리들"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들이 그들의 사업을 마친 후에야 이해되도록 되어 있었다.

"일곱 우레"가 그 완전한 성취에 이르면, 그 "장차 있을 사건들"은 다니엘서와 결합된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에 의해 표상된다. "일곱 우레"의 "장차 있을 사건들"로 표상되는 십사만 사천의 사역은 다니엘서와 세 천사의 기별을 결합하는 것이다.

주께서 곧 세상의 최악 때문에 세상을 벌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빛과 진리를 거절한 것 때문에 주께서 종교 단체들을 벌하시려 하신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결합한 큰 기별이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사업의 부담이 되어야 한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 주석, 7권, 950쪽.

2023년 12월 31일 이래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특정한 "순서"로 예언적 진리들에 붙은 봉인을 떼어 오고 계신다.

## 밀러주의의 역사

지금 살아 있는자들 가운데에는, 다니엘과 요한의 예언을 연구하는 가운데, 특별한 예언들이 제 순서대로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밟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빛을 받은 이들이 있다. 그들은 백성에게 때에 관한 기별을 전하였다. 진리는 정오의 태양처럼 분명히 빛났다. 예언의 직접적인 성취를 보여 주는 역사적 사건들이 백성들 앞에 제시되었고, 그 예언은 이 지구 역사의 종결로 이어지는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임이 판명되었다. 선택된 기별, 제2권, 101, 102.

그리스도께서 한밤중 외침의 기별의 봉인을 열어 오신 '순서'는 은혜 기간의 종결로 이끄는 '예언의 직접적 성취'를 보여 주는 '역사적 사건들'을 가리킨다. 말세의 예언의 직접적 성취는 시간에 근거한 예언들의 계시가 아니지만, 팔모니는 여전히 수를 사용하여 예언의 직접적 성취를 식별한다. 시간은 더 이상 없고, 비록 밀러주의자들이 그들의 세대에게 '시간의 기별'을 전했을지라도,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간'보다 더 강력하다.

"주님께서 내게 보여 주시기를,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나아가 주님의 흠어진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야 하며, 때를 정하는 일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이는 때가 다시는 시험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이들이 때를 설교함으로 생겨나는 거짓된 흥분에 사로잡히고 있음을 보았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때를 내세우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 나는 이 기별이 그 자체의 기초 위에 설 수 있고, 그것을 강하게 하기 위해 때가 필요하지 않으며, 큰 능력으로 나아가 그 일을 이루고, 의로움 가운데 신속히 마쳐질 것을 보았다." 경험과 견해, 48.

예언적 진리들의 봉인 해제에 따르는 순차적 "질서"는 점진적 역사를 식별하게 할 뿐 아니라, 메시지의 전개 또한 식별하게 한다. 제시된 역사의 "질서"와 12월 31일 이래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 메시지를 어떻게 봉인에서 풀어 오고 있는지의 발자취, 이 둘을 이해하는 일은 모두 구원론적으로 중요하다. 2023년 7월에 광야에서 외치는 한 소리가

2023년 12월 31일의 봉인 해제를 위한 길을 예비하기 시작하였다. 그런 다음 유다 지파의 사자가 요한계시록 1장을 봉인에서 풀었다.

##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순서대로 주어진 엄숙한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서 최우선의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증언, 제8권, 301, 302쪽.

2023년에 시작된 글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성취되리라 명시하신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차례로 이루어질 것들도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은 제자리에 서 있다. 요한도 제자리에 서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예언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다니엘서를 열어 주셨고, 이로써 다니엘은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그 성취의 바로 문턱에 서 있는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크고 엄숙한 사건들에 관하여, 주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계시하신 바를 증언한다.

"역사와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오류 사이의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투쟁을 묘사한다. 그 투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미 있었던 일들이 다시 반복될 것이다." 선택된 기별, 제2권, 109쪽.

## 삼십

다니엘서 11장 40절의 기별은 1996년에 봉함이 풀리고 정식화되었다. 삼십 년이 지난 지금, 바로 그 동일한 절의 감추어진 역사가 한밤중의 외침 기별의 정식화와 연관되어 이제 봉함이 풀리고 있으며, 그 기별은 이슬람에 대한 수정된 외적 예측과 이에 연관된 한밤중의 외침의 수정된 내적 기별로 구성되어 있다.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은 16절의 일요일 법령 이전에 선포되는데, 비유에서 문이 닫히는 것은 바로 그 일요일 법령에서이기 때문이다.

## 베드로

이는 베드로를 십사만 사천의 인침 역사 속에 위치시킨다. 베드로에게는 다락방에서 선포한 기별과 성전에서 선포한 기별이 있었다. 다락방의 기별은 비유의 한밤중 소리이며, 성전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큰 소리 외침이다. 베드로가 다락방에서의 한밤중 소리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의 기별은 먼저 교정되고 정식화되어야 했다. 그 교정과 정식화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2023년 12월 31일 이래로 식별해 오신 예언의 선들을 모아 종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지금의 과업은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을 정식화하는 것이다. 기별의 정식화는 1831년 윌리엄 밀러에 의해, 그리고 1996년 The Time of the End 잡지에 의해 예표되었다. 2020년 7월 18일에 첫 번째 실망을 초래했던 그 기별의 교정은 요시아 리치와 새뮤얼 스노 양자 모두에 의해 예표되었다. 그들이 각각 수행한 일은 1840년 8월 11일의 여파와

일곱째 달 운동의 여파 속에서 뒤따른 '효과'를 '야기'하였다. 1840년에 그 기별은 전 세계 모든 선교지로 전해졌고, 1844년에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은 해일처럼 미국 동부 해안 지대를 휩쓸었다. 사람들이 행한 일이 성령의 부어주심이라는 '효과'를 '야기'하였다. 1840년의 기별은 바다로 표상되는 온 세상으로 나아갔고, 1844년의 기별은 땅으로 표상되는 미국으로 나아갔다. 1840년의 표상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땅과 바다 위에서 계신 그리스도였고, 바로 그 장은 1840년부터 1844년에 이르는 역사를 제시하며, 땅과 바다 위에서 계신 그리스도를 묘사한다.

1840년과 1844년 모두에서, 예언에 대한 조정은 시간을 미래로 미루어 정확한 날짜에 맞춘 조정이었다. 하나는 이슬람에 관한 예언이었고, 다른 하나는 열 처녀의 비유에 관한 예언이었다. 하나는 외적이었고, 다른 하나는 내적이었다. 1844년에는 성소에 대한 오해라는 오류도 포함되어 있었다. 성소는 지구였는가, 아니면 하늘 성소였는가? 그 오해는 단순히 성소의 정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으니, 이는 또한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따라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갈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시험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시어, 불타는 병거를 타고 휘장 안의 지성소로 들어가 앉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때 예수께서도 보좌에서 일어나셨고, 몸을 굽히고 있던 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와 함께 일어섰다. 예수께서 일어나신 후에는 예수로부터 부주의한 무리에게 한 줄기 빛도 전해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였고, 그들은 완전한 흑암 속에 남겨졌다. 예수께서 일어나실 때 함께 일어난 자들은, 그분께서 보좌를 떠나 그들을 조금 앞으로 이끄실 때에도, 눈을 그분께 고정한 채로 있었다. 그때 그분이 오른팔을 드시니, 우리는 그 아름다운 음성을 들었다. "여기에서 기다리라. 나는 내 아버지께 가서 나라를 받으려 하노라. 너희의 의복을 흠 없게 지키라. 잠시 후에 내가 혼인 잔치에서 돌아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런 다음 구름 같은 병거가, 불처럼 타오르는 바퀴를 가지고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왔다. 그분께서 그 병거에 오르시자, 아버지께서 앉아 계신 지성소로 실려 가셨다. 거기서 나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분의 옷자락에는 방울과 석류, 방울과 석류가 달려 있었다. 예수와 함께 일어난 자들은 지성소에 계신 그분께 그들의 믿음을 올려 드리며, "나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의 영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내쉬셨다. 그 호흡 속에는 빛과 권능과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나는 보좌 앞에 여전히 엎드려 있는 무리를 향해 돌이켜 바라보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 보좌를 떠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사탄이 보좌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계속하려는 듯 보였다. 나는 그들이 보좌를 우러러보며 '아버지여,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사탄은 그들 위에 거룩하지 않은 영향력을 숨결로 불어넣었다. 그 속에는 빛과 큰 능력이 있었으나, 감미로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은 없었다. 사탄의 목적은 그들을 속임 가운데 붙들어 두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뒤로 물러가게 하여 미혹하는 데 있었다." 초기 저술, 55, 56.

성소에 대한 오해로 야기된 일체의 오해를 설명하는 "열쇠"로 성소가 규정되었다. 그것은 실망을 설명하는 "열쇠"였다. 후일에는 "열쇠"는 성전에 대한 오해를 설명하는 실망이다.

1844년 10월 22일부로 “시간은 더 이상 없다”가 되었고, 2020년 7월 18일의 실망에 따른 오류는 이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나, 시간의 측면에서가 아니니, 이는 시간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던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며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두고 맹세하여 말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천사의 소리가 나서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요한계시록 10:5-7.

정정되어야 할 그 예언이 지목하는 장소는 테네시주 내슈빌이며, 그 장소는 변경될 수 없다. 이는 그 장소가 Future for America가 아니라 엘렌 화이트에 의해 특정되었고, 예언의 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내슈빌에 있을 때, 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고, 밤중에 하늘로부터 곧장 내려온 거대한 불덩이가 내슈빌에 내려앉았다. 그 불덩이에서 화살처럼 사방으로 불길기 뿜어 나갔고, 가옥들이 불에 삼켜지고 있었으며, 가옥들이 휘청이며 무너지고 있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그곳에 서 있었다.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다른 이들은 손을 부여잡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고 있었다. “너희는 알고 있었지,” 그들이 말했다. “이 일이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경고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결코 말해 주거나 어떤 경고도 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거의 그들을 갈가리 찢어 버릴 듯하였다. 원고 188, 1905.

내슈빌 위에 임한 불덩이들의 내적 쟁점은,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내슈빌 경고 기별을 알고도 침묵하였음을 드러낸다는 데 있다. 이것은 예언적 역사에서 ‘한밤중의 외침’ 기별의 ‘수치’ 혹은 ‘기쁨’이 나타나는 지점이다. 이 지점에서 기치가 될 자들이 들어 올려지기 시작하며,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내슈빌 경고를 주지 않은 것에 격분하고 노한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 그때 수치를 당하는 자들과 구별되어 드러난다. 이와 같은 동일한 예언적 구별은 갈멜 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 사이에서, 또한 밀러주의 역사 가운데 둘째 천사의 역사에서, 곧 개신교가 배도한 개신교로 변하여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시작하고 로마의 딸들이 되었을 때에 표상되었다. 1989년에는, 정치적 뿔이 레이건을 통해 바로 그 동일한 일을 행하였는데, 다만 레이건은 로마의 딸들이 된 것이 아니라, 아합과 클로비스 1세처럼 로마의 연인이 되었다.

“한 장면이 내게 제시되었다. 때는 안식일 전야였다. 바로 그때 그 장면이 내게 보여졌다. 내가 창밖을 내다보니,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대한 불덩이가 있었고, 그것이 그들이 기둥을 주조하여 건물을 세우고 있던 곳에 떨어졌는데, 특히 그 기둥들이 내게 두드러지게 보였다. 그 불덩이가 바로 그 건물로 와서 그것을 짓이겨 버린 듯하였고, 그것이 사방으로 갈라져 뿜어나가고, 또 뿜어나가며, 점점 커져 가는 것을 그들이 보았으며, 그들은 울부짖고 애통하고 또 애통하며 손을 비비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 사람들 중 몇몇이 그 곁에 서서 말하기를,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상해 오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해 오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해

오던 것이다' 하였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는가? 당신들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는가?' 내가 보기에는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용모에 그토록 큰 고뇌가 나타나 있었고, 그들의 모습에 그토록 큰 고뇌가 서려 있는 듯하였다." 원고 152; 1904.

2020년 7월 18일의 실망은 기치로 높이 들려질 성전을 식별하는 '열쇠'이다. 재림 신자들을 둘로 구별하는 것은 성경 예언의 주요 주제이다. 예레미야는 "조롱하는 자들의 회중"에 합류하기를 거부하였고, 서머나와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모두 자칭 유대인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자들인 사탄의 회당과 대조되었다. 스스로 재림 신자라 공언하는 자들의 두 부류 사이의 구별은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론으로 드러난다. 그것은 화잇 자매가 '이른바 고등교육'이라 부르는 것과 참된 교육 사이의 구별이다.

내슈빌은 "남부의 아테네"로 알려져 있으며, 내슈빌에서 그리스를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건축물은 센테니얼 공원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으로서, 1897년에 고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실물 크기로 복제하여 건립된 것이다. 이 건축물은 1796년 테네시가 주 지위를 획득한 지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으며, 기념 행사가 끝난 뒤에는 철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903년에 그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었고, 1920년부터 1931년까지 파르테논 신전은 영구 구조물로서 재건되었다.

'파르테논'이라는 명칭은 그리스어 파르테노스(parthénos)에서 유래하며, '동정녀' 또는 '처녀'를 뜻하는데, 이는 지혜, 전략, 예술, 공예, 문명의 여신으로서 순결하고 지혜로우며 전쟁적 성격을 지닌 아테나의 측면을 가리킨다. 기원전 447-432년에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건립된 이 건축물은 조각가 피디아스가 제작한 거대한 크리셀레판틴(금과 상아로 만든) 아테나 상을 봉안하였으며, 본질적으로 그녀의 '집' 또는 신적 거처로 기능하여, 그곳에 그녀가 현존한다고 믿어졌다.

서구 교육 체제에서 광범위한 지식, 비판적 탐구, 시민적 준비, 그리고 자유학예의 체계에 대한 강조는 근본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실천에 뿌리를 두고 있다. 플라톤의 아카데메이아,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케이온, 혹은 아테네의 파이데이아가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학교 교육은 매우 다른 양상을 띠었을 것이다.

1904년, 매디슨 학교가 내슈빌에서 9마일 떨어진 교외에 설립되었다. 엘렌 화잇은 원래의 매디슨 학교(정식 명칭은 내슈빌 농업 및 사범 학원이었고, 후에는 매디슨 칼리지로 알려졌)의 창립 이사였다. 그녀는 1904년 창립 당시부터 이사회의 창립 이사로 봉직하였다. 그녀는 1914년경까지 이사회에 재직하였다(1915년 그녀의 사망 바로 전 해).

이것은 그녀가 참여하거나 봉사하기로 동의한 유일한 대학 또는 기관의 이사회였다. 그녀는 다른 재림교회 기관들에서 이러한 공식 직책을 의도적으로 제한하였으나, 자신의 교육적 권면과의 일치 때문에 매디슨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었다(자급, 농장 기반, 선교 중심의 훈련으로, 성경, 육체노동, 그리고 남부 및 그 너머에서의 봉사를 위한 실천적 준비를 강조함). 화이트 자매의 내슈빌을 향한 기별들은 1904년과 1905년에 주어졌는데, 이는 매디슨 학교가 시작되던 때와 같은 시기였고, 파르테논 전시물이 영구 공원에서 영구적인 상설물로 바뀌고 있던 때이기도 했다. 그리스 교육의 상징과 하늘 교육이 둘 다 같은 짧은 기간에 그 시작을 표시하였는데, 바로 그때가 내슈빌의 불덩이들에 관한

환상들이 주어진 때였다.

지난밤 내 앞에 한 장면이 나타났다. 나는 그 전부를 끝내 마음 놓고 밝히지 못할지 모르나, 조금은 밝히겠다.

거대한 불덩이가 세상에 내려와 큰 가옥들을 짓눌러 무너뜨리는 듯하였다. 곳곳에서 '주께서 오셨다! 주께서 오셨다!'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많은 이들은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나, 소수는 '주를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를 찬양하는가?" 하고, 자기들 위에 갑작스러운 멸망이 임하고 있던 자들이 물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찾고 있던 것을 이제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들이 임할 것을 너희가 믿었다면, 왜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그 두려운 응답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였다. 왜 우리를 무지 가운데 버려 두었는가? 너희는 거듭 우리를 보았으면서도, 어찌하여 우리와 사귀지 아니하고 장차 임할 심판과 우리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았는가? 이제 우리는 멸망하였도다!" 원고 102, 1904.

나슈빌 기별의 맥락은 지리적 요소가 참 혹은 거짓 교육이라는 영적 장면 속에 배치된 것이었다. 곧 영혼을 하늘이나 땅의 시민으로 준비시키는 교육이다. 화잇 여사의 ناش빌 환상들에는 이슬람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ناش빌의 불덩이 환상에 이슬람을 결부시키는 정당화의 근거는 무엇인가? 2020년 ناش빌 기별의 정정은 어떻게 조시아 리치와 새뮤얼 스노의 사역과 부합하는가? 그들의 정정은 최초의 예측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증거가 정정된 예측을 성립시키는 증거임을 그들이 인식했을 때 이루어졌다.

이슬람에 대한 증거는 ناش빌의 경고 기별과 연결되기 훨씬 이전에 확립되었다. 이슬람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사실은 여러 성경적 증언들을 통해 예증된다. 셋째 천사의 경고는 북방 왕의 권위의 표에 관한 경고를 대표하며, 이슬람의 경고는 동방의 자손들에 대한 경고로 표상된다.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소식이 그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큰 분노로 나아가 파괴하고, 많은 자들을 철저히 없애려 할 것이다. 다니엘 11:44.

1844년 10월 22일, 일곱째 나팔이 불리기 시작할 때 셋째 천사가 역사 속에 등장하였다. 일곱째 나팔은 또한 이슬람의 셋째 화이다. 1863년의 반역이 일곱째 나팔의 소리를 9/11까지 침묵시켰는데, 그때 하나님의 권능의 한 번의 손길로 뉴욕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지는 가운데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셋째 천사가 강림하였다.

9/11은 인침의 시기의 알파, 곧 시작이었으며, 그 시기는 머지않아 임할 일요법령 때에 십사만 사천인의 인침이 오메가, 곧 종결에 이르러 끝난다.

9/11은 미국에서의 짐승의 우상에 대한 시험의 때의 알파이며, 그 시험의 때는 오메가에 이르러 끝나는데, 그 오메가는 미국에서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발생한다.

9/11은 공화주의와 개신교의 뿔들을 포함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살아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알파, 곧 시작이며, 그 심판은 곧 임할 일요일 법령에서

종결된다.

9/11은 "주님의 준비의 날"의 알파이며, 그 날은 주님의 안식일에 관한 시험에 이르러 종결된다.

9/11은 초석으로 표상되는 성전 건립의 알파이며, 오메가인 머릿돌이 성전 위에 놓일 때 그 건립은 종결된다.

9/11은 미국에서의 셋째 화의 알파이며, 그것은 요한계시록 11장의 지진에서 끝나는데, 그 지진은 곧 임할 일요일 법령이다. 그 지진 때 셋째 화가 속히 임한다. 내슈빌 화염구들의 역사는,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교인들을 정죄하며 "이제 우리는 멸망했다"고 선포하는 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법령 때 은혜의 시기가 종결되기 이전의 일이다.

요엘서와 그 오순절 성취는, 지식의 증가를 깨닫지 못하는 한 부류가 그것을 깨닫는 자들을 술에 취했다고 비난하는 때에 일어나는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을 둘러싼 논쟁을 제시한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대면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그 진리의 한 요소는,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그리고 이어 성전에서 보여 주었듯이, 그 기별이 두 단계의 기별이라는 점이다. 이는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분의 집 밖에 있는 자들에게로 이어지는 것으로도 표현된다. 그 심판의 과정은 요한계시록 18장의 두 음성으로도 나타나는데, 첫째 음성은 9/11에서 일요일법에 이르기까지를 가리키며, 둘째 음성, 곧 4절의 음성은 일요일법을 표징한다. 또한, 말라기가 은혜의 때가 마감되기 직전에 돌아올 자로 지목한 엘리야에 의해서도 늦은 비의 참과 거짓 예언의 기별의 구별이 예시된다.

갈멜 산에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상징한 것은 '지혜로운 엘리야'와 어리석은 바알의 선지자들이었다. 엘리야는 베드로이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다. 불이 내림으로써 어리석은 술 취한 자들이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로 드러나게 되면, 백성은 마침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라고 응답한다. 내슈빌 예언의 성취 때,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그렇게 드러난다. 그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밖에 있으면서 어리석은 자들의 불신실함을 각성하게 된 자들은 확신에 이르게 되지만, 그들의 은혜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내슈빌 경고 기별로 표상되는 지혜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의 드러남에 대한 예시는, 열 처녀의 비유가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되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이정표이다.

2020년 7월 18일의 실망은 정정되어야 할 기별을, 그리고 재림운동 내부에서 기름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현현을 규정한다. 내슈빌을 경고하는 기름의 기별을 결여한 자들은, 기름을 소유한 자들과 대조된다. 그 기별의 기름을 소유한 부류와 소유하지 못한 부류, 이 두 부류 가운데, 한 부류는 밀러주의 역사에서의 첫 번째 실망으로 표상된 실망을 경험하였고, 다른 부류는 그 경험이 없다. 밀러주의자들에 의해 예표된 그 실망이 없다면, 어떠한 실패한 예측도 정정할 바가 없다. 2020년의 내슈빌 예측이 이슬람을 지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정되어야 할 실패한 기별의 한 요소와 일치한다.

이에 대한 증거는, 내슈빌의 불덩이들이 임하는 그 역사가 밀러주의자들의 첫 번째 실망과 그 이후의 기별 정정의 역사와 일치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9/11에 셋째 천사가 도래하여 셋째 화의 이슬람의 도래를 표지함으로써 시작되는 역사 안에서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이슬람이 요한계시록 11장의 일요일 법령의 지진에서 예언적으로 다시 도래한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화이트 자매가 이슬람과 내슈빌 경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별 속에 이슬람을 유지하는 것은, 그 역사의 주제가 이슬람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다니엘서'라는 제목의 연재물 제153편에서 우리는, 발람과 나귀의 증언과 일치하게, 나귀로 표상되는 이슬람이 9/11에서 일요일법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속에서 미국과 세 가지 주요한 상호작용을 갖게 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첫째를 9/11로, 둘째를 2022년 10월 7일로 확인하였다. 또한 첫 번째 공격은 영적 영화로운 땅에, 두 번째 공격은 이스라엘의 문자적 영화로운 땅에 가해졌으며, 세 번째 공격은 일요일법의 지진에서 있을 공격임을 지적하였다. 우리는 이 예언적 차원에서의 발람의 역사가 진리의 표식을 지님을 지적했는데, 이는 첫 번째와 마지막 공격이 영적 영화로운 땅에, 가운데 공격이 반역의 상징인 문자적 영화로운 땅에 가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내슈빌의 불덩이들이 성취될 때 한밤중의 외침 기별의 시작을 표지하는 네 번째 타격이 영적 영화로운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본다. 이는 발람과 그의 나귀의 두 번째 타격이 이중으로 구성되어, 그 두 번의 타격 가운데 첫째는 문자적 영화로운 땅에, 둘째는 영적 영화로운 땅에 가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기사는 불완전한 진리를 제시하였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이제 그것을 이슬람과 내슈빌의 불덩이 사이의 예언적 연관성에 대한 또 다른 증언으로 드러내셨다. 이슬람과 불덩이의 연계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논거는 거룩한 역사의 개혁선들 안에서 발견된다. 모든 개혁 운동은 그 운동 전체를 관통하는 고유한 주제를 각각 지닌다. 모세의 개혁선의 주제는 선택된 백성과 언약에 들어가는 일이었다. 그리스도의 개혁선의 주제는 메시아였다. 다윗의 개혁선의 주제는 십계명과 성소였다. 밀러주의자들의 경우 그 주제는 예언적 시간이었으니, 밀러주의자들은 '시간의 기별'을 전하였다. 9/11에 셋째 천사가 도래함으로써 14만 4천의 개혁선의 주제는 셋째 화의 이슬람, 동방의 자손들, 성경 예언의 나귀, 요한계시록 9장의 전쟁의 말들, 동풍, 메뚜기, 그리고 열국을 노하게 함으로 확인되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지진은 셋째 화의 이슬람을 표지하며, 동시에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이 종결됨을 표상한다. '한밤중의 외침'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개선 입성하신 사건으로 예표되었는데, 그 일은 나귀를 푸는 일로 시작되었다. 밀러주의 역사에서 '한밤중의 외침'의 시작은 사무엘 스노가 말을 타고 엑서터 야영 집회에 도착한 사건이었다. '한밤중의 외침'의 기간의 시작은 이슬람의 상징으로 표지된다. 2020년 7월 18일의 수정된 기별이 경고의 기별에 이슬람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거가 풍부하다. 구체적인 날짜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내슈빌의 불덩이들은 말세의 '새 포도주'를 둘러싼 논쟁을 가리키므로, 내슈빌의 불덩이들에는 이슬람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그 불덩이들을 핵무기로 동일시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 기별은 많은 증인들의 증언에 근거하여, 그 공격에서의 대적자를 이슬람으로 규정하는 점을 유지해야 한다. 수정되어야 할 시한 설정의 오류는 1840년과 1844년 둘 모두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시간은 더 이상 예언적 기별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숫자는 여전히 그 일부이다. 성소에 대한 오해로 표상된 오류 또한 해결되어야 하며,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어 교정된 기별에 통합되기 전에, 성소에 대한 오해가 전형적으로 보여 준 그 오류가 무엇인지 먼저 식별되어야 한다. 그 성소 오해는 7월 18일 내슈빌 경고에서 무엇을 표상하였는가?

나는 그 해답이 2023년 말 이래로 봉인이 풀려 오고 있는 빛 가운데서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창세기, 마태복음, 계시록에서 각각 제11장에서 시작하여 제22장으로 끝나는, 서로 병행하는 열한 장의 세 줄기는 십사만 사천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이다.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 체하며 행함으로써 그분의 자비의 제의를 거절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인간적 힘에 의지하여 옆드려 "그분이 명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이다"라고 선포하는가? 혹은 성령께서 그분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도록 허락하는가?

그 해답들은 또한, 때를 첫째·둘째·셋째 천사의 기별로 제시하는 다니엘서 12장의 세 절의 봉인이 풀리는 데서 발견된다. 그 세 절은 또한, 7절에서는 2023년 12월 31일을, 12절에서는 2020년 7월 18일을 지시하며, 11절에서는 1989년으로부터 일요일 법령을 거쳐 은혜의 시한의 마감에 이르기까지가 표상된다. 그 세 절 안에 있는 그 세 가지 진리는, 예언의 봉인이 풀릴 때마다 항상 일어나는 삼중의 시험 과정이 제시되어 있는 바로 그 성경 본문 안에 자리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니엘 12장의 삼중 시험의 인봉을 단순히 푸신 것만이 아니라, 그 시험들을 기초적 시험, 이어서 성전 시험, 이어서 시금석 시험으로 규정하셨다. 그분은 더 나아가 그 기초적 시험이 2023년 12월 31일에 시작되었고, 외적 이상을 정립하는 상징인 적그리스도로 표상되는 밀러주의 운동의 기초적 시험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셨다.

그는 이어서 두 번째 시험, 곧 성전 시험이 다니엘서 10장에서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본 다니엘의 환상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시험은 현재 진행 중이다. 다니엘서 12장의 봉함 해제에서는 1989년, 2020년 7월 18일, 2023년 12월 31일, 그리고 일요일 법령이라는 연대들이 드러나며, 그 봉함 해제에는 로마에 관한 환상과 그리스도에 관한 환상이 포함된다. 이 두 환상은 12장의 봉함 해제가 나타나는 바로 그 동일한 환상 안에서 제시되어 있다. 그 세 장은 하나의 환상이며, 그리스도에 관한 환상은 10장의 성전 시험이고, 적그리스도에 관한 환상은 11장의 기초 시험이며, 12장에 나타난 십사만 사천의 이정표들은 많은 이들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시련을 받는 가운데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과 분리되는, 세 번째이자 시금석이 되는 시험을 대표한다.

성전 시험은 레위기 23장의 빛, 곧 언약궤의 빛을 드러냈으며, 그것은 일곱째 날 안식일의 알파의 빛이요 일곱째 해의 안식년의 오메가의 빛이다. 알파와 오메가 안식일의 그 빛은 성육신의 빛을 밝힌다. 그 빛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회복하시려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셨음을 밝히며, 이는 그리스도께서 1844년 10월 22일에 시작하신 사역이고, 지금 살아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마무리하고 계신 사역이다.

레위기 23장의 빛이 알파의 봄 절기들과 오메가의 가을 절기들을 결합하여, 2023년 12월 31일부터 인류의 은혜 기간의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바로 그 역사를 형성하였다. 그

선상에서 기초적 시험은 2023년 12월 31일에 도래한 것으로 표시되었고, 성전 시험은 2025년에 시작된 것으로 규정되었으며, 그것은 나팔절의 시금석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2023년 7월에 시작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세 부분의 이정표로부터 5일 뒤에 끝난 무교절로 표시되었다. 그 다음에는 30일의 기간이 있었고, 그 뒤를 세 부분의 이정표가 이어졌으며, 다시 그 뒤를 5일이 따랐는데, 이로써 영원한 복음의 세 단계를 예증하였다. 세 부분의 알파 이정표 다음의 5일은 첫째 천사요, 30일은 둘째 천사이며, 오순절의 일요일 법령까지 이어지는 세 부분의 오메가 이정표 다음의 5일은 셋째 천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성전의 시험기 동안, 언약궤를 제작하는 레위기 23장의 빛을 여셨다. 언약궤의 한편에는 일곱째 날 안식일의 기별 또는 천사가, 다른 한편에는 일곱째 해의 안식년의 천사가 있으며, 이들은 언약궤를 굽어보며 그것을 덮는 그룹들을 표상한다. 십사만 사천을 인치는 역사에서, 그 두 천사의 이중의 빛은 일곱째 날 안식일과 성육신 교리를 표상하며, 이는 영원토록 연구될 주제이다.

물론, 일곱 때를 희년의 상징, 곧 1863년의 영적 노예해방선언으로 보지 못한다면, 윌리엄 밀러의 알파와 오메가의 예언들이 곧 일곱 때와 이천삼백 주야였음을 보지 못할 것이다. 서로 연관된 그 두 시한 예언의 의의를 보지 못하면, 1798년이 일곱 때를, 1844년이 이천삼백 주야를 대표한다는 어떠한 인식도 가로막힌다. 그런 무지 가운데서는, 레위기 23장이 줄에 줄을 대어 결합되어, 봄 절기를 진술하는 처음 22절을 가을 절기의 마지막 22절과 함께 배치할 때, 그 줄이 1844년으로 대표되는 제칠일 안식일에서 시작하며, 44절의 줄 끝을 이루는 안식일은 1798년으로 대표되는 땅의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된다.

두 안식일의 관계를 보지 못하는 것은 1798년의 일곱 때가 인성이고 1844년의 2,300일이 신성임을 보지 못함을 나타낸다. 그토록 깊은 맹목 가운데서는, 일곱째 날 안식일의 알파의 빛과 성육신 교리의 오메가의 빛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을 타락한 인간의 인성과 결합하시는 사역을 지시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일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을 우리의 인성과 결합하시는 사역은 1798과 1844를 결합하는 사역이다. 이는 1798이 인간의 육체를, 1844가 신성을 표상하기 때문이다.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높은 본성과 낮은 본성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높은 본성은 육적이며 죄 아래 팔렸다. 그리스도께서는 회심의 순간에 회심한 영혼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시니, 이는 회심에서 칭의가 일어나며, 칭의란 의롭게 됨을 뜻하기 때문이다. 낮은 본성은 즉각적으로 속량될 수 없으며, 그 낮은 본성에 관한 복음의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받는다는 것이다. 높은 본성은 마음이고 낮은 본성은 육체이다. 높은 본성은 '일곱 때'의 예언으로서, 일곱째 나팔과 희년의 나팔이 함께 울리기 시작한 대속죄일인 1844년 10월 22일에 종결되었다. 낮은 본성의 '일곱 때'는 1798년에 끝났으니,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새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1798년에 해당하는 일곱 때, 1844년에 해당하는 일곱 때, 그리고 1844년에 이르는 이천삼백 년은 1844년 10월 22일에 시작된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한다. 그 사역은 그의 신성과 인성을 연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성과 신성으로 이루어진 성전이 1844년에 하나로 연합될 때, 1798년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었다. 이는 그것이 이방인의 뜰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성전의 시험은 성전을 측량하는 일을 포함하며, 2023년에 시작된 봉인 해제의 역사 초기에, 일곱 우레의 봉인 해제를 통하여 첫 실망에서 대실망에 이르는 역사가 일곱 우레가 대표하는 역사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현현으로 식별되었다. 영감에 따르면 일곱 우레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역사 동안 전개된 사건들과 또한 장차 자기들의 순서대로 드러나게 될 사건들을 대표한다. 그 완전한 성취는 2023년에 주어진 최초의 계시들 가운데 하나였던 진리의 틀 안에 정립되었다. 처음의 실망은 오메가 실망을 대표했으며, 그 중간에는 그 기별의 '기름'을 기준으로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이 구별된 엑시터 캠프미팅이 있었다.

밀러주의자들의 성전은 연속된 실망을 거치며 세워졌고, 따라서 십사만 사천의 성전이 2020년 7월 18일부터 비유에서 문이 닫히게 될 임박한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세워진다고 식별되며, 이는 1844년 10월 22일에 그러했던 것과 같다. 일곱 우레가 표상하는 역사는 다니엘 12장의 빛 안에서 제시된 역사와 동일하다. 다니엘 12장의 1,290일의 빛은 11절에 제시된 30년의 기간과 직접 연결된다. 또한, 택하신 백성과의 언약의 첫 대표자와 문자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의 언약 관계의 변화를 식별하도록 일으켜진 선지자에 의해 구별되는 30년과도 연결된다. 레위기 23장의 구조 한가운데에 있는 30일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삼중적 언약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동일한 30년이다. 11절의 508년부터 538년까지의 30년은 십사만 사천의 제사장직을 상징한다.

레위기 23장 구조 속의 30일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을 친히 대면하여 가르치신 40일의 일부이다. 삼십은 서른 살에 직무를 시작하던 제사장들을 상징한다. 508년부터 538년에 이르는 30년은 이교 로마에서 교황 로마로의 전환을 가리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십사만 사천의 라오디게아 제사장직에서 십사만 사천의 빌라델비아 제사장직으로의 전환을 가리킨다. 그 전환은 '상번제'가 제거된 508년, 533년의 유스티니아누스 칙령, 그리고 538년의 일요일 법령으로 대표되는 세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그 전환은 최종적으로 완결되었다.

그 30년은 1989년부터 일요일 준수령에 이르는 기간을 표상한다. 하나님의 인 맞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백성은 그의 성전으로서 온 세상이 보도록 들려 높여질 것이다. 그때 세상은, 그의 백성에 의해 대표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으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드러내는 죄의 사람 사이에서 분별하게 될 것이다. 임박한 일요일 준수령 때에, 곧 큰 무리이기도 한 열한시 일꾼들은 근본적 시험에 직면할 것이다. 일곱째 날 안식일이 하나님의 안식일인가, 아니면 태양의 날이 하나님의 안식일인가?

이제 또 하나의 장면이 그의 앞에 전개되었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의 아버지의 율법을 공경한다고 공언하면서도 그리스도를 거절하도록 이끄는 사탄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보여 주심을 받았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공언하는, 유사한 기만 아래 있는 그리스도교계를 보았다. 그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입에서 "그를 없이하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하는 광분한 외침을 들었고, 이제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교사들의 입에서 "율법을 폐하라!"는 외침을 들었다. 그는 안식일이 짓밟히고 그 자리를 대신하여 거짓된 제도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다. 다시금 모세는 경악과 공포로 가득 찼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찌 거룩한 산에서 친히 그분의 음성으로 반포하신 율법을 거절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찌 하늘과 땅에서 그분의 통치의 기초인 율법을 폐기할 수 있는가? 모세는 기쁨으로, 소수의 신실한 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율법이 여전히 존중되고 높임을 받는 것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멸하려는 세상 권세들의 마지막 큰 투쟁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어나 땅의 거민들의 죄악을 벌하실 때와, 그 이름을 경외한 자들이 그분의 진노의 날에 덮여 숨김을 받는 때를 내다보았다. 그는 그분이 거룩한 처소에서 음성을 발하실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맺으시는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을 들었다. 그는 영광 중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죽은 의인들이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함과, 살아 있는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어,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도성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족장들과 선지자들, 476.

이방인이며 한 시간의 일꾼들인 큰 무리는 기초 시험을 받고, 그 뒤를 곧바로 성전 시험이 따른다. 죄의 사람과 함께 있는 로마의 인간 성전이 너희가 그 위에 믿음을 세울 때 반석이 되겠는가, 아니면 모래가 되겠는가? 혹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성육신의 성전, 곧 베드로가 '신령한 집'이라 부르는 십사만 사천의 성전이겠는가? 그 토대와 성전을 시험하는 그 기간에 박해가 세 번째 단계의 리트머스 시험을 이루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인간을 위한 유예 기간이 종결될 것이다.

유다 지파의 사자는 이제 40절의 감추어진 역사를 메우고 있으며, 고레스, 네로, 트럼프에 관한 세 개의 250년 예언을 통하여 더 큰 빛을 비추셨고, 그분께서는 내슈빌의 교정된 기별을 선포하는 사역을 강조하셨던 바로 그때에 그렇게 하셨다. 네로의 연대선은 미국에서, 이어 전 세계에서 짐승의 형상이 최종적으로 수립되는 틀을 제공한다. 기원전 457년의 고레스 연대선은 라피아와 파니움 사이의 역사, 곧 임박한 일요일 법령에서 파니움이 악티움과 결합함에 따라 시작되는 제3차 세계대전과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의 역사를 식별한다. 트럼프의 연대선은 금년 7월 4일에 끝난다.

네로는 박해의 상징이다. 서머나 교회는, 박해가 250년 뒤 버가모 교회, 곧 타협의 시기에 종결될 때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지목한다. 이 선은 형상이 세워지는 일을 지목하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분의 성전에 세워지고 있는 역사와 상응한다. "칙령"은 첫 번째 일요일 법령으로 이끄는 기점이며, 그 뒤에는 동방과 서방,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 사이를 가르는 "단힌 문"이 뒤따른다. 그 기간을 개시하는 "칙령"은 또한 온 세상을 위한 동일한 시험 기간을 개시하는 바로 그 "칙령"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 "칙령"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네로의 17년 연대선의 모든 이정표는, "칙령"—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준하는 성격의 것—으로 시작되는 일요일 법령 위기에서의 박해가 점차 격화되는 양상을 지목하고 있다.

기원전 457년의 고레스의 세 칙령은 끝부분에 세 개의 이정표가 놓인 17년의 기간을 식별하는데, 이는 네로의 선과 고레스의 다른 선도 마찬가지로, 그 선들은 1798년부터 1844년에 이르는 동안 제1·제2·제3 천사의 도래로 종결되었다. 고레스의 세 단계는 라피아 전투, 이어 두 번째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10년, 그리고 그 다음 파니움 전투에 이르기까지의 7년이다. 시작과 끝이 모두 전투이므로, 그것은 알파와 오메가의 표징을 지닌다. 첫 번째 10년의 기간은 2014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시작된 시험의 기간을 나타내며, 두 번째 기간은 7년 후 파니움 전투에서 끝난다.

## 팔모니

팔모니께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역사 속의 밀러주의자들에게 때의 기별의 봉인을 여셨고, 그분은 셋째 천사의 역사인 십사만 사천의 역사 속에서 수의 기별의 봉인을 여신다.

마카베오 반란으로 표상되는 1776년부터 1798년까지의 스물두 해와 같은 상징적 예언의 역사들은 여섯째 왕국의 개시 원인과 다섯째 왕국의 종결 원인을 밝힌다. 제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비연속적인 두 임기를 수행한 유일한 두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오메가 대통령을 예표하는 알파 대통령이었다. 전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승계하여 집권한 대통령들까지, 그리고 스스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들을 함께 계산할 때,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한 스물두 번째 대통령이다.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은 독립선언 이후 스물두 해가 지난 1798년에 시작되었다. 1798년에서 2026년에 이르는 기간은 알파 날짜의 22와 오메가 날짜의 22로 표상된다.

제11장에서 시작하여 제22장에서 끝나는, 각각 열한 장으로 이루어진 세 개의 연속이 있다. 이 세 개의 열한 장 연속 각각에는 세 절로 표상되는 정확한 중간점이 있다. 창세기는 '할레'가 선택된 백성과의 언약적 관계의 상징으로 주어진 때를 밝힌다. 그것은 선택된 백성에게 언약 백성을 표상하는 표징이 처음으로 주어진 때였으며, 마태복음에서는 중앙의 세 절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실 반석을 지목한다. 그 절들은 시몬 바요나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뀐 때를 지시하며, 이는 십사만 사천에 해당한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연속의 가운데는 일곱에 속한 여덟째 머리로서의 교황권을 지목함으로써 '사망의 언약'을 식별한다. 그렇다면 Desire of Ages의 제11장이 세레 요한의 메시지를 지목하고 제22장이 세레 요한의 죽음을 지목한다는 사실의 함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장들의 중간 부분은 168쪽에 해당하며, 그곳에서 '니고데모'라는 제목의 장이 시작된다. 제11장의 제목은 '세레'이고 제22장의 제목은 '요한의 투옥과 죽음'이다. 제11장은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상징하며, 제17장과 니고데모도 그러하고, 요한의 죽음 또한 그러하다.

이 내용은 다음 기사에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